

한-아세안 중기 협력 방안 모색

중기중앙회, 특별정상회의 참석 '스타트업 중소기업 협력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중소기업 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는 △아세안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상공회의소 부 피엔 록 회장과 △한·아세안센터 이혁 사무총장이 참여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을 선임연구위원과 △삼성증권 부 수련 토 책임연구원 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베트남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

책의 핵심 전략 국가로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베트남 산업생태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베트남 5개 특별시(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켄터)와 58개 성(省) 가운데 가장 면적이 작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박닌성은 삼성전자와 협력 중소기업들의 진출로 베트남의 제조업 메카이자 수출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연사로 참석한 부 피엔 록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세안은 △그랩(Grab, 차량호출업) △고젝

(Gojek, 차량호출업) △토크오피디아(Tokopedia, 전자상거래) △트래블로카(Traveloka, 여행업) 등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한 곳이다"라며 "4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은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이 꽃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연사로 참여한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한국과 아세안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서로 상대국에서 자유롭게 창업하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 및 전수함으로써, 현지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세안 스타

트업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하여 현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 간 지원사업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 수련 토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은 "아세안 유망 스타트업 대표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하는 '한·아세안스타트업 워크' 등의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외교 행사다. /김윤상 기자

책으로 농업정보를 '알기 쉽게'

고령 농업인 이야기 담은 '할머니 밭에는...'
과실 특성 신뢰성 향상 위한 '포도 우량계통...'
가축자원 소개 '한국의 가축생명자원 도감' 등
농진청, 신간 3권 발표... PDF파일로 열람 가능

농촌진흥청이 '할머니 밭에는 토종씨앗이 자란다', '포도 우량계통 수채 및 과실 특성 표준조사 매뉴얼', '한국의 가축생명자원 도감' 등 신간 3권을 발간했다.

할머니 밭에는 토종씨앗이 자란다는 토종씨앗을 보전하고 있는 고령여성 농업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토종 씨앗은 자연에 서식 또는 자생하는 야생종이나, 다른 지역 품종과 교배되지 않고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 환경에 적응한 재래종을 말한다.

이 책은 경기 화성, 강원 홍천, 충남 홍성, 전북 진안, 경남 거창,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역에 사는 77세부터 93세까지의 고령여성 농업인이 경작 중인 토종 씨앗과 그 활용에 대해 소개한다. 책에는 할머니 14명이 소개하는 △토종과 함께 한 삶 △보유·경작 중인 토종 씨앗과 농사 방법 △수확한 토종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등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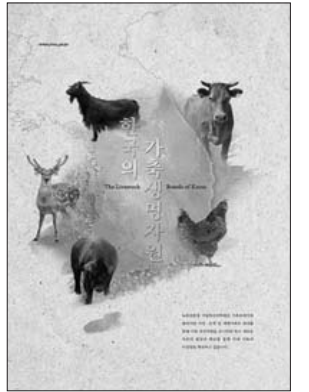
할머니들이 재배하는 뿌리배추, 대가리파 등 84종의 토종작물과 옥수수부꾸미, 솔밭, 밀개떡 등 57가지 음식 관련 이야기도 실었다.

발간 책자는 수량 범위 안에서 토종 씨앗과 전통음식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www.nrd.go.kr)에서 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포도 우량계통 수채 및 과실 특성 표준조사 매뉴얼은 지역별 포도나무 특성(수채)과 과실 특성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

책자는 포도 우량 계통 표현형(외형형질)을 조사할 때 담당자의 시각과 숙련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제작됐다. 포도나무의 정확한 특성 발현을 위한 기반 시설과 나무 관리 방법, 생육단계별 조사 항목, 과실 특성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실었다.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www.nrd.go.kr)에서 발간 자료 → 최



'한국의 가축생명자원 도감' 표지

신 발간 도서 '포도' 검색)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축생명자원 도감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축생명자원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우리나라 가축생명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퍼낸 한국의 가축생명자원 도감에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담았다. 소, 돼지, 염소 등 포유류 7종과 닭, 오리 등 조류 3종 등 총 10종류 47 품종·계통의 정보를 실었다. 가축의 분류, 역사, 특성, 보유 현황 등을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제주흑돼지, 제주마, 진도개, 삼살개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을 비롯해 국립축산과학원과 민간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품종을 소개했다.

이 책자는 문화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보급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www.nrd.go.kr)에서 PDF 파일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도감 발간이 우리 가축생명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 3일 한정 특가 '타임머신' 이벤트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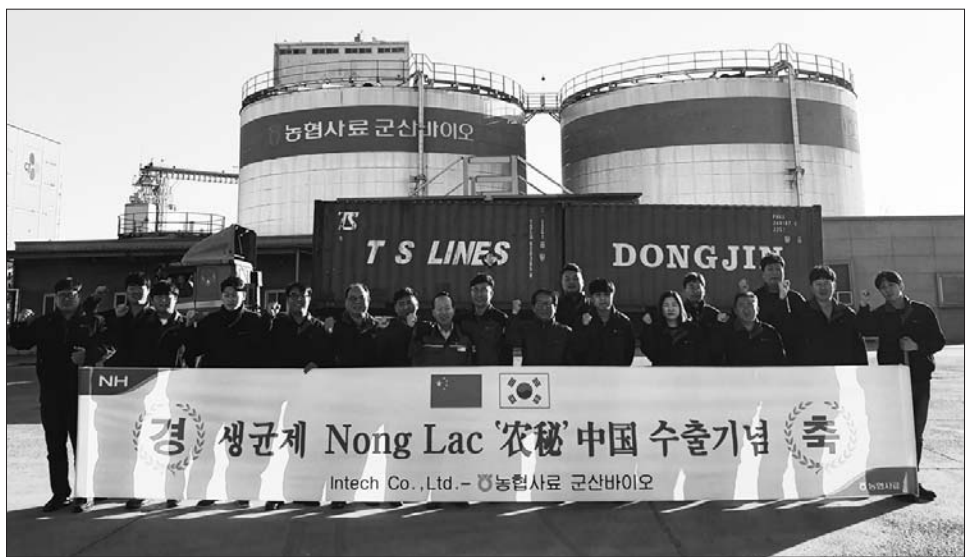
이스타항공이 3일 한정 특가 '이스타타임머신' 이벤트를 오픈한다.

이스타항공은 25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이스타타임머신 이벤트를 통해 노선별로 오전 10시 상하이, 오전 11시 가오슝, 오후 2시 화롄 등 4개 노선 특가항공권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탑승기간은 11월 2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다. 특가 가격은 편도총액인원 기준 최저가 ▲인천-상하이 7만15200원 ▲인천-가오슝 5만 7100원 ▲인천-화롄 5만9100원 ▲부산-화롄 5만7100원부터 예매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의 '이스타타임머신' 이벤트는 짧은 기간 동안 오픈되는 타임딜 형태의 특가 이벤트로, 매일 특정 노선을 선정한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농협사료는 지난 22일 군산바이오공장에서 2019년도 3차분 생균제 4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생균제' 4t, 중국에 수출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농협사료(대표이사 김영수)는 지난 22일 군산바이오공장에서 2019년도 3차분 생균제 4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도 생균제 시장은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유럽·일본산 등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군산바이오는 중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생균제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3차분 수출을 이어 나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국내 생균제의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다.

생균제는 소·돼지 등 가축이 살아있는 미생물 균체를 섭취함으로써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유기산, 비타민 및 항균물질들에 의해 면역 증강, 악취감소, 소화 효율성이 높아지

게 하는 제품이다. 농협사료 군산바이오가 생산하는 생균제는 축종별, 기능별 용도에 따라 맞춤 제조가 가능하고 시중 생균제보다 살아있는 균이 10배 이상 함유된 고품질 제품이다.

군산바이오 운영팀 장장은 "순탄치 않은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수출을 이뤄냈다"며 "향후 중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질병 감염예방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한 신기술·인력양성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은, 창립 50주년 맞아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실시

프놈펜 등서 개인수술

시력검사·안경 무료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에서 창립 50주년 '2019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캄보디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글로벌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자 마련됐고, 전북은행 해외봉사단, 계열사인 프놈펜상업은행(PCBank), (사)담장너머 의료진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전북은행은 자의선이 강한 열대기후 특성상 백내장 등 안과질환자가 많은 캄보디아에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기 어려운 실정의 위기에 처한 의료소외계층 94명에게 무료로 개인수술을 진행해 새로운 빛과 삶의 희망을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캄프스푸, 견달 등의 지역에서 550명에게 안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실시했고,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찾아가 130명의 초·중학생들의 눈을 검진하고 현장에서 시력을 교정한 후 PCBank를 통해 현지에서 제작한 안경을 전달하기로 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에서 창립 50주년 '2019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우리가 전한 나눔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한 가정, 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적의 내비효과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국내·외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7년부터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웰컴 투 코리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문화강좌를 제공하는 '다문화교실'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에 발맞춘 사회공헌사업을 펼침으로써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LX, 올 하반기 신입사원 98명 모집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

공정한 채용문화를 실천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하반기 신입사원 98명을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회씩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는 LX는 상반기에 296명을 선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9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14년 능력 중심 채용(NCS), 2016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LX는 이번 채용에서도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 성적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유지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내 채용을 위해 지역내재 채용 목표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 채용활동제를 전 분야로 확대했다.

원서접수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www.lx.or.kr)으로 진행되며, 취업준비생들은 필기시험(2019. 12. 21.)과 역량면접(2020. 1. 21. ~ 1. 22.)을 통해 2020년 2월에 최종 선발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부안 오투그란데2차 하이스트' 공급

중기 장기재직자 우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부안 오투그란데2차 하이스트'의 특별공급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제일건설로, 주택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서리 427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추천세대수는 총 3세대(84.95A 1세대, 84.95B 1세대, 84.95C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

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공급부터는 제출 방식이 다양해졌다. 희망자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김윤상 기자